



고려대학교병원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

첨단의학 선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실현
고대병원, 산학연 협력 및 융복합 연구중심병원의 미래 발전방안 논의



고려대학교병원이 5월 7일(화) 오후 2시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고려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고대병원이 지난 3월 26일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최종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연구중심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병원 및 의대관계자 뿐만 아니라 고려대 공대, K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기업체 임원까지 다양한 연구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정보교류와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융복합 개방형 중개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중심 고대병원의 미래를 밝혔다.

먼저, 최재걸 연구부원장의 ▲연구중심병원 경과보고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유전체 맞춤의료(김열홍 교수, 고려대 의대) ▲IT 융합기술(박건우 교수, 고려대 의대) ▲줄기세포(박용 교수, 고려대 의대) 등 중점연구분야를 소개했다.

이어서 진정한 KU-KIST 융합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현장중심 중개연구의 개념(김석관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중심병원과 외부연구자의 협력방안(최귀원 박사, KIST) ▲의료산업화에서의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선경 교수, 고려대 의대) 등 고려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수행해야할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강의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김상식 고려대학교 연구처장을 좌장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운영 목표(홍성화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산업체의 기대(지동현 박사, 한국 애브비 부사장) ▲연구중심병원과 산학연 협력방안(신세현 교수, 고려대 공대) 및 패널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린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고려대병원이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하며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 및 첨병으로서 최고의 연구력을 발현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하 고려대학교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방형 중개연구의 구심점이 되어 적은 투자로도 효과적인 연구산업화를 이끌어내고 진료의 질을 높이며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창조적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의생명분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병원은 2005년부터 글로벌 수준의 연구능력이 검증된 의생명과학자를 전임교수로 임용해 임상 의사들과 공동연구를 유도해 왔으며, 조직개편 실시, 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전략적인 투자를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의학발전기금기부

| | | | | | |
|----------|--------------|--------------|----------|---------------|---------------|
| 13.04.01 | 김현(77학번동기회) | ₩ 3,000,000 | 13.04.03 | 권택근 | ₩ 500,000,000 |
| 13.04.10 | 김우주(77학번동기회) | ₩ 10,000,000 | 13.04.05 | 의전원 10학번 학부모회 | ₩ 7,500,000 |
| 13.04.08 | 서일원(77학번동기회) | ₩ 1,000,000 | 13.04.12 | 차인호 | ₩ 20,000,000 |
| 13.04.08 | 김정기(77학번동기회) | ₩ 1,000,000 | 13.04.29 | 최진옥(77학번동기회) | ₩ 2,000,000 |
| 13.04.23 | 장일태(77학번동기회) | ₩ 3,000,000 | 13.05.03 | 송해준(77학번동기회) | ₩ 2,000,000 |
| 13.04.23 | 김혜남(77학번동기회) | ₩ 3,000,000 | 13.05.20 | 김용훈(77학번동기회) | ₩ 1,000,000 |
| 13.04.23 | 김영훈(77학번동기회) | ₩ 1,000,000 | 13.05.08 | 김연희 | ₩ 5,000,000 |
| 13.03.14 | 윤종태 | ₩ 1,000,000 | 13.05.22 | 김용신 | ₩ 10,000,000 |
| 13.03.20 | 오미미 | ₩ 3,000,000 | 13.05.20 | 전지민 | ₩ 10,000,000 |
| 13.03.27 | 재단법인 석명과학재단 | ₩ 3,000,000 | 13.05.16 | 이지영,신현영 | ₩ 10,000,000 |

* 기간 : 2013년 04월 01일~2013년 05월 16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암! 고려대학교병원은 이렇게 치료한다! >

국내 최고의 진료시스템과 실력으로 위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위암센터

남성암 발병율 1위 위암, 생존율 높은 탁월한 치료성적 '이유있네'



▲ 남성 암환자 5명 중 1명, 위암!

2010년 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08년 암발생 현황에 남성 암 중 발병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위암(갑상선암 제외)은 전체암중 19.6%라는 수치를 보여 남성 암환자 5명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위암은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초기단계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사망률이 높지만 초기암일 경우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 수술 없이 조기위암 치료하는 내시경 시술 세계 최고봉

고려대병원은 위암센터는 위암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진료시스템과 실력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아 왔다. 내시경 끝에 달린 전극의 고주파 열을 통해 암세포를 태워 잘라내는 치료법인 위암내시경 점막절제술은 1980년대 후반 고대병원 소화기센터에 의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조기위암 치료에 큰 기여를 했다.

위암의 빠른 발견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인데, 고려대병원 위암센터는 일찌감치 치료내시경시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왔다. 소화기내과 전훈재 교수는 본인이 위종양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직접 시술한 건수만도 2,000여건이 넘는다. 전훈재 교수는 "위암 시술 성공률이 95% 이상에 이르러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치료성적을 뛰어넘는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고 말했다.

▲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

위암은 조기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위암1기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발견에 실패할 경우 림프절과 주변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이 높아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위암4기 5년 생존율이 10% 이하라는 통계가 이를 대변한다. 고대안암병원에서는 진행성위암으로 진단될 시,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수술과 함께 항암화학요법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다수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위암치료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부위장관 외과 박성흠 교수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진행정도에 따라 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위 절제범위, 림프절 절제범위를 최소화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보다 많은 위암환자의 치유를 위해 조기위암환자뿐만 아니라 진행성 암환자의 치료도 완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진행성 암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수술결과를 좋게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맞는 수술방법을 개개인마다 달리 해서 암진행상태에 맞는 맞춤형 암치료를 선보이고 있다.

▲ 로봇수술을 통한 치료효과극대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흉터를 최소화하면서도 회복기간이 빠르고 통증이 덜한 진화된 위암 수술법으로는 위암 복강경 수술과 로봇수술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로봇수술의 경우 비용은 비싸지만 좁은 공간에서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고 정밀하게 암이 있는 부분을 절제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환부를 실제보다 2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로봇수술은, 의료진이 병변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결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상부위장관외과 박성흠 교수는 "로봇수술은 로봇 팔이 정밀하게 움직여서 매우 기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림프절에 전이된 암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위암 수술에 효과적이다" 고 말했다.

▲ 위암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끊임없는 노력

고려대학교병원은 토모테라피와 리니악 등의 최신의료기기를 활용해 원하는 위암 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법을 병행해 치료성적을 높이고 있다. 위암을 수술한 후 보조항암 치료와 재발, 혹은 전이되었을 경우 사용하는 항암치료법도 최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는 세계적인 위암 임상시험을 통하여 각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치료법과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크게 기여하여 10여개의 새로운 항암제 개발 임상시험을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어 위암환자들에게 첨단 약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박성흠 교수는 말기암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위암발생률이 낮다는 점에 착안, 위암치료를 여성호르몬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또 위암세포주를 이용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위암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병원, 초진 암환자대상 빠른 <hi-pass system> 실시!

癌(암)

병원에 처음 오시는 암환자는 무조건 hi-pass~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초진 암환자 빠른 hi-pass system>

- 당일 진료, 당일 일반검사(혈액검사, X-Ray 등)
- 특수검사(MRI, CT, PET-CT 등) 당일~1주 내 실시
- 1주 내 입원, 진단 후 1주 내 암 수술
- 초진 암환자 별도관리로 hi-Pass~

*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서 상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조심! 무릎 십자인대 파열!

[건강정보 1]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질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



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결국 3월말 수술을 받은 심민철씨는, 현재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했던 당시를 생각하니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다.

▲ 십자인대파열, 왜 일어날까?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십자인대의 파열은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직접적인 수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농구, 축구, 스키 등 운동 중에 직접적인 가격 없이 발생하여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파열이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 중에 갑자기 속도를 내다가 속도를 멈춘다거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때, 무릎에는 외부압력이 가해지고 동시에 회전력도 작용하여 이를 제어할 수 없을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다.

안암동에 사는 학생 심민철(23)씨는 최근 스키 시를 하다가 약! 소리를 내며 무릎을 잡았다. 검사결과,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소식을 듣고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다.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스키장에 갔고, 시간이 부족한터라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채 운동을 했다. 뛰다 멈춰 벽에 부딪쳐 돌아오는 공을 쳐야하는 스키의 특성상, 심씨는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날아오는 공을 쳤고 갑자기 무릎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 후, 병원을 찾은 심씨는 십자인대파열이

▲ 십자인대파열, 가만히 두면 조기퇴행성 관절염까지!

십자인대가 파열될시, '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릎 속에 피가 고여 손상 부위가 붓고 통증이 유발된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적이지 않고 며칠이 지나면 붓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타박상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고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대희 교수는 "방치된 전방십자인대파열은 무릎관절의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주변 연부조직들, 특히 연골판 파열을 초래하게 된다"며, "연골판이 찢어진 것이 또 방치되게 됨으로써 조기퇴행성 관절염이 온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 수술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전방 십자인대는 자연치유력이 낮아 보존적 치료나 봉합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손상된 십자인대는 보통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는 재건술을 받는다. 또한 수술 후에는 인대가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거나 책상 위에 손을 얹고 다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으로 무릎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기전 반드시 무릎을 충분히 스트레칭 하여 풀어준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대희 교수는 "수술 후에 관절운동 회복과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의 협진 하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전방십자인대 수술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릎십자인대는 쉽게 손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벼운 부상이라도 지나치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도움말 | 정형외과 이대희 교수

천식약 · 아스피린 함께 먹으면 발작 위험

[중앙선데이 4월 21일 게재]



기침 · 호흡곤란 · 천명(숨 쉴 때 발생하는 쉼쉼 거리는 소리)이다. 기침은 8주 이상 지속되면 천식을 의심해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천식 유병률은 3%다. 최근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한다. 환자의 3분의 1이 10세 이하다. 남아가 여아보다 2배가량 많다. 그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성인은 남녀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다."

▲ 천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유전 ·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유전적인 게 40~60%를 차지한다. 부모가 천식이면 자녀의 천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5배 높다. 환경적 요인은 집먼지 진드기 · 꽃가루 · 동물 털 · 식품 · 흡연 · 대기오염 등이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킨다. 집먼지 진드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완전히 박멸할 순 없다. 침대의 집먼지 진드기는 한 사람이 하룻밤 자면서 배출한 피부 각질만으로 한 달을 산다. 정신 ·

코 · 입 · 기관지 같은 호흡기관은 봄이 오면 괴롭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다, 꽃가루 · 황사 같은 미세먼지 탓에 실 틈이 없다. 고려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상엽 교수에게 천식의 원인과 관리 · 치료법에 대해 들었다.

▲ 천식은 어떤 질환인가

"코, 입, 목으로 들어마신 공기가 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뻗어 있는 파이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 질환이다. 기관과 기관지가 붓고 좁아져 숨쉬기 힘들어진다. 천식의 3가지 대표 증상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기도가 좁아져 천식 발작이 생길 수 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기도 기능도 떨어진다."

▲ 완치가 어려운가

"천식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꾸준히 치료 받으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하다. 이때 다른 호흡기 질환이 겹치면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에 걸리면 염증 때문에 기도가 더 막힌다. 결국 가래를 뱉지 못해 증상이 급속히 악화된다. 드물지만 가래에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사할 수도 있다. 요즘처럼 감기 ·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조심해야 한다."

▲ 어떻게 치료하나

"치료법은 크게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이 있다. 비약물요법은 천식 유발 요인을 찾아 피하는 것이다. 약물요법에 쓰이는 치료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좁아진 기관지를 넓히는 확장제와 염증을 치료하는 조절제다. 두 종류의 약을 혼합해 흡입하는 약을 많이 쓴다."

▲ 천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약이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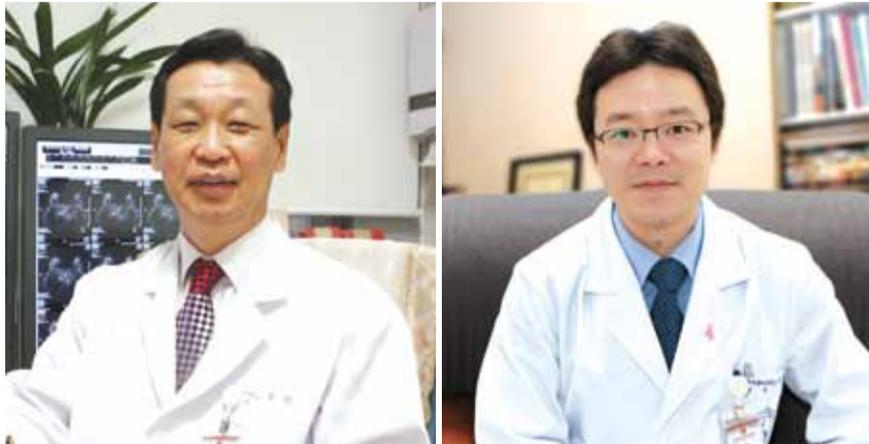
"고혈압약과 녹내장 치료제(점안액) 중 일부 제품은 피해야 한다. 베타차단제 계열의 약은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특징이 있다. 소량이어도 치명적이어서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이다.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도 기관지를 수축시켜 천식 발작 위험이 높다. 천식 환자가 이런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응급실에 실려 온 사례가 있다." 

도움말 | 호흡기내과 이상엽 교수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유방절제술, '유전성 유방암' 이 뭐길래..

[건강정보 2]

한국 유방암 중 7%의 환자가 겪고 있는 '유전성 유방암',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



최근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소천한 모친께서 유방암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언급하며 유전성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양쪽 유방 절제 수술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유방절제술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녀가 절제술을 감행하게끔 만든 '유전성 유방암', 과연 한국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

▲ 한국의 유방암 중 7%를 차지하고 있는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은 한국에서 연간 1만 6,000여명이 새로 진단되고 있으며, 이 중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로 연간 1,000여명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드물지 않다. 가족 중 유방암 및 난소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가 있을 시,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고려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는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조기에 발견한 유방암의 경우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고 강조하며, "유전성 유방암은 젊은 나이에 발생하기 쉽고, 양측 유방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 관련된 질환이므로, 유전성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주의깊은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 유전성 유방암이 일어나는 원인은?

유전성 유방암은 BRCA1과 BRCA2이라 불리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는 원래 유방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이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기능을 상실하여 유방암 뿐 아니라, 난소암, 췌장암, 위장관암 등을 일으키며 세대를 통해 유전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

특히 가족은 유전자 뿐 아니라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천으로부터 유방

암발생 유전자를 이어받지 않은 경우에도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족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20%이며 이런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유전성 유방암, 예방을 통한 조기 검진과 치료가 우선

BRCA1,2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 유전성 유방암은 젊은 여성의 양측 유방에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가족 중 유방암병력이 있는 돌연변이 고위험군의 경우 18세부터 매월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며, 25세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전문가에 의한 유방 진찰, 1년마다 유방촬영 등 영상학적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경우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화학적 예방법, 양측 유방을 절제하고 복원 수술을 시행하는 예방적 유방절제술, 예방적 양측 난소 절제술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 및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실시되는 예방적 목적의 유방절제술과 같은 경우, 절제와 재건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외형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회복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실시하는 유방자가검진 및 유방전문의와의 상담이 치료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유전성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유전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와 의사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유방암의 발생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해야..

유전성 유방암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생에 걸친 경과관찰 및 가족에서의 발생을 예방, 조기 발견, 치료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배정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질환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다" 고 강조하며, "환자 본인 뿐 아니라, 후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유전상담 및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도움말 | 유방내분비외과 배정원, 정승필 교수

'KBS알약튼튼'과 함께하는 5분건강 2.족저근막 스트레칭과 강화운동

[5분 건강]



고려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이진혁 운동처방사가 'KBS 알약튼튼'과 함께 4월부터 5월에 걸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2. 족저근막 스트레칭과 강화운동

대상 : 발바닥 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

운동방법 : ① 작은 공이나 얼린 물통을 준비한다.

② 발바닥을 그 위에 올리고 앞뒤로 움직여 준다.

③ 수건을 준비한다.

④ 발가락 힘으로 수건을 당겨 준다.

주의사항:

① 발바닥 스트레칭 시, 공을 눌러줄 때 통증이 없는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② 발가락으로 수건을 당겨 줄 때, 뒷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실시를 해줘야 합니다.

*족저근막이란?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막으로 보행 시 충격 흡수 역할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병원, 환자중심의 암 진료 역량 강화

[기획특집]

암센터 및 유방센터 확장을 통해 환자 편의개선에 더욱 힘써



고려대학교병원 유방센터와 암센터(센터장 김열홍)가 4월 30일(화) 개소식을 갖고 항암치료와 유방암환자에게 더욱 넓고 편안한 진료공간, 빠른 검사 및 치료 공간, 다학제 진료를 통한 효

과적 암치료 시스템으로 재탄생 하게됐다.

개소식에는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병원장, 이기형 부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을 비롯한 교직원 50여명이 모여 센터 오픈을 축하했다.

박승하 병원장은 개소식에서 “암센터와 유방센터의 확장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라고 말하며, “환자들이 더욱 안락한 공간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 환경개선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넓어진 공간, 짧아진 이동동선으로 암환자 편의 보장 - 암센터

이번에 2층으로 이전 및 확장한 암센터는 진료실을 확장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해 항암치료를 받으려온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까지 고려하는 외래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보다 밝고 넓어진 진료실과 짧아진 이동동선을 통해 움직임이 다소 불편한 암 환자들까지 병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원치료실을 확장하고 병상수를 늘림으로서 입원 없이도 당일로 조용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환자들을 더욱 배려했다. 항암치료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김열홍 암센터장은 “암센터는 암 환자의 모든 진료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다양한 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확장된 진료실은 가장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당일진료, 검사 및 진단 One-stop - 유방센터

유방센터 역시 이번 확장이전을 통해 보다 넓은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됨으로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장소 역시 2층 가장 조용하고 안락한 곳에 위치해 유방암 환자들만의 개별적인 공간이 마련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외래를 훨씬 넓혔을 뿐만 아니라 유방촬영과 초음파 촬영도 이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고, 진단 후 일주일 이내 암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다학제 진료를 통해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유방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진료과별 유기적인 프로세스도 더욱 강화했다. 현재 유방종양성형술을 통해 암 수술시 최대한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고 있으며, 진행된 암의 경우 수술 전 항암제 치료로 암크기를 감소시켜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즉시 협진을 통해 유방복원술을 시행하는 등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배정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유방센터는 ‘암 환자 서포트팀’ 과 ‘다학제적 시스템’ 을 도입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의 진단과 최고의 치료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번 센터확장이 더 많은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알아보는 야생진드기(살인진드기)

[건강정보 3]



최근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야생진드기(살인진드기)’ 의 위험성과 예방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된 진드기는?

작은 소참진드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진드기는 널리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분포하며,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에 서식한다.

2. 우리나라는 SFTS 바이러스가 이전부터 있었나?

바이러스와 이를 매개하는 진드기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최근들어 감염된 진드기가 확인되었다.

3. SFTS의 치명율과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은?

치명율은 최근 6%정도로 알려져 있다.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이 주 증상이다.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종창, 호흡기증상(기침), 출혈증상(혈뇨 등)을 일으킨다.

4. 진드기에 물렸다면?

진드기가 일으키는 질병이 다양하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진드기가 몸에 붙으면 처음에는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시간

이 지나면 점차 검고 동그랗게 커진다.

5. 진드기 제거는?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는 핀셋을 이용하여 비틀거나 회전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천천히 제거합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머리는 남고 몸체만 떨어지므로 그 부위에 염증 및 균이 인체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제거하며 어떤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치료법

이 바이러스만 죽이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치료를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에 따른 의료진의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

7. 예방 수칙

- * 야외활동시 긴 옷을 입는다.
- * 기피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 귀가시엔 반드시 겉옷을 벗어 털고, 꼭 세탁한다.
- * 야외활동 후 샤워/목욕을 생활화해 늘 청결을 유지한다.

KBS 교향악단 '클로버 콘서트' 개최



고려대학교병원은 23일 병원 3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교향악단과 함께 '클로버 콘서트'를 개최했다. '클로버 콘서트'는 KBS교향악단에서 진행되는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

으로,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환자를 대상으로 연주하는 콘서트이다. 이번 콘서트는 답답한 병원생활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고려대학교병원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콘서트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클로버 콘서트'를 진행하는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된 이래,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년 20여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방송연주회, 기획연주회, 지역연주회 등 연간 80회 이상의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

어린이날-어버이날, 고려대학교병원이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어린

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3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안암어린이집(원장 이슬비)에 방문한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병원을 대표해 어린이 한명 한명에게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튼튼반' 어린이들은 '부원장님 사랑해요'라는 글귀가 담긴 선물을 전달했고, '슬기반' 어린이들은 '네잎클로버'라는 노래와 율동으로 선물에 화답하기도 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엔 간호부와 친절리더팀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했다. 간호부에서는 입원하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소정의 음료를 전달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한 내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및 비만도 무료검진과 건강 상담을 하며 내원고객의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친절리더팀에서는 1달 전부터 배워온 네일아트 실력으로 병원에 방문한 내원객과 환자, 가족에게 손 마사지, 손톱 손질, 네일아트를 제공하며 500여명에게 행복을 선사했다. 📌

고려대학교병원-한국건강관리협회 협력병원 협약 체결



고려대학교병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가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5월 13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병원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려대병원 박승하 원장, 이기형 진료부원장, 최재걸 연구부

원장, 조태형 기획실장, 진운태 교육수련위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실장, 최봉섭 총무팀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 박정범 원장(동부), 선승철 건강증진본부장 등의 보직자들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에 설립되어 연 평균 370만 여명의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홍보사업, 국제협력사업, 사회공헌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비영리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협회 소속 전국 16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과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와 협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고대병원 '2012년 지표발표회' 성료



고려대학교병원(병원장 박승하)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2012년도 필수지표 및 우선순위 지표발표회'를 개최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지표발표회는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고대병원에서는 매년 필수지표 및 우선지표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날 지표 발표회에서는 16개부서가 총 47개 지표를 발표했으며 발표를 통해 부서간의 개선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투약시 환자 확인 시행률, 구두처방 지침 수행률 등 6가지 지표관리 (간호부), ▲처방오류 발생율을 포함한 5가지 지표관리 (약제팀)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ER note 작성률 등 5가지 지표관리 (의료정보팀)를 한 3팀이 2012년도 우수부서로 선정되 표창장과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박승하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은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한다"며, "고대병원이 국내 의료계에서 양적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적 부문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QI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긴밀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직원 및 환자대상 몽골어 및 몽골문화 교육 시행

[행사소개]



을 갖고자 마련됐다.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몽골사람, 몽골문화, 몽골의료시장 현황 프리젠테이션 (장기이식센터 박관태 교수) ▲몽골 미니공연 (허미) ▲몽골어 교육 (계열 몽골 코디네이터) ▲스마트폰 통역 어플리케이션 소개 (이은정 간호코디네이터)등으로 진행됐으며, 평소 몽골환자를 어려워하는 간호부서와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부분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고려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가 지난 5월 13일(월) 오후 5시 고려대학교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및 환자,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몽골어 및 몽골문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환자에게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고려대학교병원 외국환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만족도를 높여, 고대병원이 글로벌 의료산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소아청소년과 정지태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이사장 선출



소아청소년과 정지태 교수(59, 鄭知太)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지태 교수는 지난 5월 10일(금)~11일(토)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5년 6월까지 약 2년간이다.

정지태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고려대학교 연구처장,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교육 이사, 국제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대한 소아과학회 총무이사, 보수교육이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환경보건센터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우수연제발표상’ 수상



유방내분비외과 이해운, 정승필, 김신일, 김훈엽, 배정원 교수팀이 지난 4월 13일(토),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2013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학회에서 고려대학교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팀은 ‘반회신경의 견인손상: 돼지 모델을 통한 연속 신경 모니터링 결과(Tractional injury of recurrent laryngeal nerve: Result of continuou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n swine model)’라는 주제로 이 상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팀(공동 연구자 배정원, 이해운, 유지영 교수)이 지난 2012년 보스턴에서 열린 로봇수술 및 최소침습수술과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에서 ‘영예의 과학 발표(honorable scientific presentation)’에 선정됨에 이어 받은 수상이라 의미를 더했다. 당시 김훈엽 교수는 독창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경구강 갑상선 절제술(transoral thyroidectomy approach using new mandibular periosteal approach)’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무흉터 경구 갑상선 절제술’은 피부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새로운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비슷한 경구 수술법을 시도했던 독일 및 미국의 3개의 연구팀보다 월등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많은 의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한국 갑상선내분비외과의 공식학회인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국내에서 1년에 2회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국내 갑상선 및 내분비 질환의 저명한 의사들이 참여하여 갑상선 및 내분비 질환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연구협력을 위한 다양한 연제발표와 수준 있는 토론이 이뤄지는 권위 있는 학회이다. 📌

원무팀 전직원, 매일 내원객 대상 아침인사 실시



원무팀(팀장 변동을)이 고객을 대상으로 반가운 아침 인사를 시작했다.

원무팀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일 오전 8시 25분 업무시작 전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등의 구호와

함께 전 직원이 수납창구에 나와 고객들에게 인사하며 솔선수범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아침인사는 고려대학교병원이 최근 ‘JCI 재인증 획득’,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 연이은 쾌거를 올리는데 대해, 더욱 성실하고 친절하게 고객들이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병원을 찾는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시작했다. 📌

친절리더팀,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 실시



친절리더팀(팀장 문영순 수간호사)이 지난 5월 3일부터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친절교육은 희망 부서에서 필요한 강의를 신청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자기관리와 관련된 7개의 서로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양성과정을 수료한 친절리더들이 강의를 함으로서 어려웠던 고객응대를 쉽게 풀었다는 부분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26일(금) 오전 본부회의실에서 분기별 친절직원 및 병동, 외래를 선정해 포상했다.

이번 친절직원에는 전공의 부문에 신경과 반광현 전공의, 간호 부문에 84병동, 이비인후

과 외래, 일반직 부문에 방사선종양학과 박은아 대리가 각각 선정됐다. 친절직원과 부서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

“가족의 건강! 당뇨캠프를 통해 우리가 책임져요”

[포토뉴스]



고려대의료원 소아청소년당뇨교실(위원장 이기형)은 지난 5월 12일(일), ‘2013년도 봄 건강캠프’를 주최했다.

경기도 남양주 산들소리 수목원에서 진행된 이번 당뇨캠프에는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간호부, 영양팀, 의료사회사업팀 등 각 분야의 전문 스텝과 당뇨환아, 자원 봉사자 등 총 65여명이 참여했다. 신한카드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이기형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인슐린 주사요법(의료분과) ▲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짜기(영

양분과) ▲ 이런 메뉴 어떠세요?(영양분과) 등 실질적인 교육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 체험프로그램-토피어리 만들기는 아이들이 직접 식물의 뿌리를 온전하게 보전하도록 이끼로 감싸고 키우는 방법을 배우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던 시간이 됐다.

이번 캠프 위원장인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는 “각종 질병을 이겨내려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러분들도 당뇨극복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